



불교계, 아프간 피랍 한국인 석방 한목소리

무사 귀환토록 자비를...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으로 고
봉받는 중생들을 보살피시는 관세
음보살님, 자비의 마음으로 저희
를 살피주소서. 지금 아프가니스
탄의 가즈니에 억류돼 공포와 죽
음의 긴장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
들을 보살피주소서.”

로 아프간에 어떤 정치적 적대의
식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부디 이번 피랍사건이 조속히 해
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도
“웃생명의 고통을 헤아리는 보살
들이 보살피주소서.”

불교계 등 국내 종교인들이 아
프가니스탄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
국인 22명의 석방을 위해 종교간
벽을 뛰어넘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토회(대표 유수)는 7월 25일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아프간 피랍
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법회
를 열었다.

이에 앞서 불교 조계종, 천주교
주교회의, 원불교 등 국내 7대 종
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
회의(KCRP)도 7월 23일 해밀턴호
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프간에
억류된 한국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DNCC 총무, 손주영 한국이슬람
교중앙회 이사장 등의 명의로 발
표한 성명을 통해 “피랍된 이들은
아프간 유치원과 병원 등에서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순수한 민간인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석방 촉구 호소문 발표
정토회, 법회 열고 ‘춧발발원’ 가족들 위로도

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7월 25일
정토회 법당에서 열린 법회에서
“그들의 목적이 비록 순수하지 못
하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소중한
생명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니다”며 “하나밖
에 없는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걸
며 도움을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보살심 없이는 결
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륜 스님은 “지금 가장 중요
한 것은 피랍자들의 무사귀환 뿐”
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회는 ‘아프간 내 한국인
봉사자들의 활동상 동영상 소개’
‘피랍 한국인의 안전을 기원하는
명상 및 정진’ ‘춧발발원’의 순서
로 진행됐다.

정토회 관계자는 “생명의 위협
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려
중요심을 드러내는 사회 일각의
분위기가 걱정스러워 법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법회가 끝난 뒤 법륜 스님 등 참
회자들이

석자들은 서초동 인근 한민족복지
재단을 방문, 피랍자 가족과 관계
자들을 위로했다.

한편 대전 지역 불교계도 피랍
된 한국인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
는 거리법회를 봉행했다. 대전충
남 지역 사암연합회 스님 등 100
여명은 7월 25일 대전역 광장에서
법회를 열고 피랍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발원했다.

김주일 기자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투자의 길을 열어 드립니다
펀드 / 변액보험 / 연금
100% 최상선 ☎011-253-3747

관음사 문제 해결 새국면

시몽 스님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재임명

제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에 시
몽 스님이 재임명됐다.

시몽 스님은 7월 24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무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후 “8월 초 제주지
법의 주지직무대행금지 가처분신
청 결과가 나오면 문제 해결의 끝
이 보일 것 같다”며 “제주불자연합
회도 이런 상황인식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불리직 총돌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간의 주지직무대행 소
임을 맡으면서 회의감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해 불리직 총돌도 배
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스님은 “산중총회를 열어 새 주
지를 선출하는 것이 문제의 끝”이
라며 “직무대행 3개월의 임기 동안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선관위원들
의 마음의 풍요도 보인다”며 희망
적인 바람을 나타냈다.

남동우 기자

그러나 제주불자연합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진명 스님을
관음사 주지로 임명하라 △시몽
주지역 불자간의 다툼과 갈등을 조
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등을 요구
했다.

또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
계종 포교원이 관음사 사대에 동문
회원들이 동참한다고 제주불교문
화대학을 없앤다는 공문을 보냈
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포교원 한 관계자는
“제주 관음사 사대에 신도교육기
관 재학생들을 개입시키거나 동원
하는 것은 중법령에 위반되는 행
위”라며 “어려운 일이 지속될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불교대학 운영위원장
인 중원 스님 앞으로 보낸 것”이라
고 설명했다.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입법 예고

조계종 총무원은 7월 25일 ‘불
교사회활동진흥법’을 입법 예고
했다.

‘불교사회활동진흥법’은 △종
단의 사회활동과 불교시민사회단
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업
무 범위 규정 △종단과 본·말사
의 사회활동 행정체계 규정 △불
교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규정 △불
교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 및 관리방안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김주일 기자

덴마크입양인 한국문화체험

천대종립 금강대학교(총장 성낙
승)는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간 덴마크 입양인 40여명을 대상으
로 한국문화체험학교를 개최했다.

한국문화체험학교는 한글, 한
국사, 태권, 사물놀이, 한국무용,
도자기 체험, 천연염색, 붓글씨,

김원우 기자

친환경소·물걸레청소·구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임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문의 및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www.mamirobot.co.kr

I Love Buddha / 집착
용정은(www.zentoon.com)
무거워... 너무 무거워...
집착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집니다.

“한지원사로 만들어진 천연한지 제품들이 불자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항균력 99.9% 암모니아 소취율 98.7% 땀냄새 제거 탁월



한지섬유는 한국의 전통한지를 한 단
계 업그레이드 시킨 소재로 한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린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섬유를 만들기 위한 원사가 필
요한데 이것이 바로 한지이다. 한지사
란 닥나무 인피섬유인 닥 섬유를 이용
하여 제조된 한지는 인체에 무해한 대
표적 친환경적 천연섬유소로 황토수준
의 원적외선 방출, 항균성, 소취성능,
흡수속건성, 용이한 염색성 등 다양한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지를 이용해 제조된 한지사는 의류
용품뿐 아니라 인테리어용, 생활용품,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실용화가 가
능한 고부가가치의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지섬유의 특징을 자
세히 살펴보면 항균성과 소취성능에
있어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분석결
과 항균력이 99.9% 유지되며 암모니아
소취율이 98.7%로 땀 냄새 제거에도
탁월하며 항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을 유지시켜준다.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와 참숯 보다 높아 혈액순환에 도
움을 준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경량소재
로 다 섬유에 비해 월등히 가벼우며,
흡수속건성, 용이한 염색성 등 다양
한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면섬유보다 흡수성이 3~5배 우수하며
건조성 또한 2배 이상 뛰어나 강력한
흡수속건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지만의 우수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유지한다.

문헌에 의하면, “한지인 신라의 백주
치를 본 중국인들은 이렇게 희고 매끄
럽고 영롱한 빛의 종이는 누에고치로
 ткнуть 스럽다고 여겨 견지, 잠견지,
금견지 등으로 부르며 예찬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한지는 통기성, 부드러운
감촉 유연한 접힘, 강인성, 색상발현이
뛰어나고, 우수한 흡수성, 방습성, 보
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양말 ₩10,000원 (1켤레)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제품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8-1호 TEL 02)364-5047 / FAX 02)393-9696 www.jisarang.co.kr
◆ 저누리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2,5호선 충정로역 8번출구 →마을버스(오거리 방향)승차 → 경대대 후문역 하차 저누